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IMAGING KOREA

HFM Könyvtár
20230303

HFM Könyvtár
20230303

한국대표작가 유럽순회사진전
The Korean Photographers' Touring Exhibition in Europe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IMAGING KOREA

HFM Könyvtár
20230303

Contents

인사말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6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한국의 초상, 혹은 한국인의 마음속 고향 8

김재환 /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장
권세훈 / 주독일 한국문화원장
김현준 /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장
이진원 / 주벨기에 한국문화원장
이대원 /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장
채수희 /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장

Greet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 7

PARK Yeongguk
Director of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ortrait of Korea, or A Spiritual Home for Koreans 9

KIM Jaewhan /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Hungary
KWON Sehun /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Germany
KIM Hyunjun /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Poland
LEE Jinwon /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Belgium
LEE Daewon /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Kazakhstan
CHAE Suhee / Director of Korean Culture Center, Spain

1

2

전시 서문

IMAGING KOREA
- 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 10

석재현
전시기획자, 대구미래대학교 교수

Preface

IMAGING KOREA
-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12

SEOK Jaehyun
Curator, Professor of Daegu Future College

작품

우연 또는 필연 / 강운구 17
노마드NOMAD / 권태균 33
충돌과 반동 / 이갑철 61
한국의 재발견 / 김종만 85
비무장지대 / 박종우 103
조선의 색 / 서현강 125
절, 숨 / 조대연 141

Works

Luck or Destiny / KANG Woongu 17
NOMAD / KWON Taegyun 33
Conflict and Reaction / LEE Gapchul 61
The Rediscovery of Korea / KIM Jungman 85
DMZ Demilitarized Zone / PARK Jongwoo 103
Colors of the Joseon Dynasty / SEO Heunkang 125
Temples, Breath / CHO Daeyeon 141

서문

바키 페테르 / 헝가리 사진 미술관 관장 166
브리타 슈미츠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170
토마스 토마제프스키 /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가 172
아드리앵 까르보네 / 루벤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174
술레예브 아우바키르 / 카자흐국립예술대학교 교수 176
훌리오 세자르 아바드 비달 / 예술 평론가, 큐레이터 178

Foreword

Baki Péter 168
Director of Hungarian Museum of Photography
Britta Schmitz 171
Chief Curator of 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Tomasz Tomaszewski 173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Photographer
Adrien Carbonnet 175
Professor of University of Leuven (KU Leuven)
Suleev Aubakir 177
Professor of Kazakh National University for the Arts
Julio César Abad Vidal 179
Art Critic and Curator

3

10

11

인사글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장

한국 대표사진가의 작품을 해외 여러 나라에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선보이는 125점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 명장들의 작품들입니다. 동시에 이 작품들은 한국과 한국인의 삶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진들이기도 합니다. 예술성과 기록성이라는 사진 예술의 본질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인 셈입니다.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소개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이번 사진전은 한국의 사진 예술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모두 28개의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 문화원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론, 한국어 보급과 다양한 한국의 문화예술을 각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정치 경제적 교류 못지않게 문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교류가 중요할 것입니다. 해외의 한국문화원은 바로 이 같은 문화를 통한 국제교류의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교류가 일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소개하고 전파하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쌍방향 교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 역시 한국의 사진 문화를 소개하는 것과 함께 각국의 사진작가 간의 교류와 토론, 협업 등을 통해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진전에 참여해주신 강운구, 권태균, 김종만, 박종우, 이갑철, 조대연, 서현강 등 일곱 명의 사진가와 큐레이터 석재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해외문화홍보원은 앞으로도 문화 외교와 문화를 통한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사진전에 소개되는 작품들에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해외의 많은 시민들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사진전을 기획한 헝가리 한국문화원과 순회 전시에 참여한 독일, 폴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스페인의 한국문화원 관계자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진전을 관람하러 오실 해외 여러 나라의 시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GREET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Korea

PARK Yeongguk

Director of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 am extremely pleased to introduce the works of Korea's prominent photographers to several countries overseas. The 125 photos in this exhibition are the work of renowned masters of photography representative of Korea. I can say that these photos simultaneously represent an honest record of both Korea and the lives of its people. The works offer the chance to witness the essence of photographic art in terms of artistry and medium for documentation. As the director of an organization that introduces Korean culture to the greater world, I believe this exhibit will be an opportunity to introduce Korean photography in earnest.

All 28 Korean cultural centers established throughout the world are engaging in many vigorous activities. Not only do they present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pop culture to the world, but also they spread the Korean language overseas and introduce Korean cultural arts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In this globalized era, mutual understanding and interaction through culture is as important as political and economic exchange. The Korean cultural centers overseas are the very places abuzz with international exchange through culture.

Cultural exchange in the past stopped at the unilateral introduction of culture to a country, it is now changing to a two-way flow of culture through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is exhibit will create the opportunity for both introducing the art of Korean photography as well as interaction, discussion, collaboration among photographers of various countries. I heartily thank all the seven photographers KANG Woongu, KWON Taegyun, KIM Jungman, PARK Jongwoo, LEE Gapchul, CHO Daeyeon, and SEO Heunkang who participated in this exhibit as well as curator SEOK Jaehyun.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will continue in the future to diligently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through cultural diplomacy. The photos in this exhibit encapsulate Korea's past, present, and future. I hope many visitors in the world can more deeply understand Korea through these works.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Korean Cultural Center of Hungary which planned this exhibit as well as all those affiliated with the Cultural Centers in Germany, Poland, Belgium, Kazakhstan, and Spain. And I als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citizen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for coming to see the exhibit.

초대의 글

한국의 초상, 혹은 한국인의 마음속 고향

김재환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장

권세훈

주독일 한국문화원장

김현준

주폴란드 한국문화원장

이진원

주벨기에 한국문화원장

이대원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장

채수희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장

이번 <IMAGING KOREA> 사진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가 일곱 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의 모습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한국인이 살아온 과거와 역동적인 현재의 순간, 그리고 한국인이 살아갈 미래까지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이라는 찰나의 순간을 담은 예술 형식을 빌려 한국인의 삶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마음속 고향이자 한국의 정직한 초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진전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진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의 초상화를 그려왔던 뛰어난 작가들이기도 합니다.

여기 선보이는 사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한국과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마천루들이 솟아 있는 메트로폴리스로서의 서울, 첨단 산업과 화려한 쇼핑물, 마치 후기산업사회의 상징처럼 보이는 현대 도시국가 한국을 보셨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사회 역시 농업과 농촌을 기반으로 했던 과거가 있었고 여전히 전통사회의 면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진전에 출품된 흑백의 사진들 속에 나타난 한국인의 모습은 그러한 과거의 재현이면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담긴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진전을 보게 될 여러분의 유년의 기억과 아주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사회를 그 특유의 역동성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다이내믹즘은 '변화와 지속'을 본질적 가치로 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그 안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과거의 축적이면서 현재의 응축이자 미래의 잠재력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진들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은 바로 이 같은 한국사회의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통사회와 현대도시의 면모, 변화하는 시간과 지속하는 현재가 중첩된 이미지로서의 한국,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사진전에 출품된 125점의 작품은 헝가리를 시작으로 독일, 폴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스페인까지 6곳의 한국문화원에서 순회 전시될 예정입니다. 참여하는 작가와 작품, 그리고 참여 국가 측면에서 매우 규모 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해주신 강운구, 권태균, 김종만, 박종우, 이갑철, 조대연, 서현강 등 일곱 명의 사진가와 사진 선정과 기획에 참여해주신 큐레이터 석재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진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박영국 해외문화홍보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시가 한국인의 내면을 알고자 하는 해외의 여러 시민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GREETING

Portrait of Korea, or A Spiritual Home for Koreans

KIM Jaewhan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Hungary

KWON Sehun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Germany

KIM Hyunjun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Poland

LEE Jinwon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Belgium

LEE Daewon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Kazakhstan

CHAE Suhee

Director of Korean Culture Center, Spain

This photography exhibition entitled <IMAGING KOREA> is a place where seven representative Korean photographers present their work. As the subtitle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suggests, those works show Korea in an honest and transparent manner. Visitors of this exhibit can glimpse into the past of Koreans, a moment of the dynamic present, and the future of Koreans will face. Expressed in the artistic medium of photography which captures an instant in time, these photos convey life in Korea as it is lived. In other words, they depict a spiritual home for Koreans and an honest portrait of Korea. The participant photographers are masters in their field of capturing portraits of Korea and its people.

The photography exhibited here are perhaps different from what people are used to. Seoul, as the metropolis of Korea with its enormous high-rises, high-tech industry and dazzling streets and shopping malls, the Korea of an urbanized nation symbolizing a post-industrial society. Korean society nevertheless has its past based in agriculture and farming villages and there was the time when it preserved intact the look of its traditional society. The look of Koreans in these black & white photographs submitted to this exhibition may help visualize core values in the hearts of Koreans with its recreation of such a past. They may very well closely resemble the childhood memories of viewers to this photography exhibition.

Many people outside of Korea define Korean society by its dynamic nature. However, this dynamism has inherent in it 'change and constancy' as its fundamental premise. Korea is a society that, while constantly changing, maintains a continuing and timeless value. This 'time' which we all live in seemingly holds at once the past accumulated, the present condensed, the potential of the future. What the viewer will experience through these photos can be said to be '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 This is the very point, a Korea of images superimposed with appearances of traditional society and modern cities, of times of change and the perpetual present.

The 125 photographs included in this exhibit are scheduled to tour the Korean Cultural Centers of six countries, starting from Hungary and then onto Germany, Poland, Belgium, Kazakhstan, and Spain. It will be a very large-scale exhibit in terms of the number of participating photographers, photos and the countries the event will be held in. Many heartfelt thanks to the seven photographers KANG Woongu, KWON Taegyun, KIM Jungman, PARK Jongwoo, LEE Gapchul, CHO Daeyeon, and SEO Heunkang as well as curator SEOK Jaehyun who helped plan the exhibit and select the photos. Gratitude is expressed also to Director PARK Youngkook of the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for his support in making all this possible. It is hoped that this exhibit stirs a deep appreciation from people overseas in their interest in the character of the people of Korea.

IMAGING KOREA - 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

석재현
전시기획자
대구미래대학교 교수

동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과 수교를 맺은 헝가리는 '유럽의 동양'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과 닮은 점이 많다. 그 중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인 고추와 마늘을 한국처럼 주렁주렁 엮어서 말린다는 것이다. 물론 헝가리에서는 고추를 파프리카로 부르긴 하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이 한국을 대표하는 가을 풍경과 닮아 있다. 유럽의 동쪽에 위치한 헝가리와 아시아의 동쪽에 자리한 한국, 대륙의 동쪽을 밝히는 두 나라가 '도나우의 진주'라 불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시작으로 독일, 폴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스페인으로 이어지는 유럽 6개국 순회 사진전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특별한 인연에서 시작되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을 한 명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국문화원 김재환 원장과 스스로 노마드Nomad라 칭하며 한국적 정서를 담은 사진가 권태균의 인연이 바로 그것이다.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너무도 매력적인 소통 방식을 통해 한국을 유럽에 알려 보자며 의기투합한 적이 있다. 지난 2014년, 권태균 작가는 "석 선생이 이런 전시기획을 구체화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며 내게 진지한 눈빛을 담아 뜻을 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60세가 되던 어느 해 밤, 심장마비로 세상을 등졌고 나는 그 전시기획안을 서랍 속에 고이 묻어 두었다. 하지만 인연이란 것은 그리 쉬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김재환 원장이 한국 사진계의 큰 어른인 강운구 작가를 뵙는 자리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전 이야기를 다시 꺼냈고 2015년 중순부터 전시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고인이 된 권태균 선배의 작품을, 수준 높은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을, 그리고 한국의 정서가 담긴 이미지를 유럽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설렘으로 다시 꺼내든 전시 기획안. 강운구, 권태균, 김중만, 박종우, 이갑철, 조대연, 서현강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일곱 명의 사진가가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기록의 미학이다.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만나본 적이 없는,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를 '기록의 미학'의 정점에 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곱 명의 사진가가 서로 다른 자신만의 시선으로 기록성과 예술성이라는 아름다운 힘을 지닌 작품 125점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이번 전시에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자연과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있다. 농업에서 시작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풍요롭던 시간. 그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살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궁궐에서 사찰에서 유적지에서, 분단의 현실이 담긴 DMZ에서, 그리고 일상의 공간에서 사진가들은 아름다운 풍광과 장인의 숨결과 진솔한 삶의 모습을 강렬한 초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IMAGING KOREA-사

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은 한국의 과거였고, 뿌리였고, 현재를 관통하는 이미지이자 미래의 우리가 그리워할 추억이며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서정적인 언어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일곱 명의 사진가가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 가운데 대표적인 이미지를 선별한 것이다. 서로 다른 시각과 접근방법으로 표현한 한국의 이미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기에 이번 전시는 또 다른 한국의 이미지, 완성도 높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낸다.

강운구의 작품 역시 '우연과 필연' 작업의 일부다. 1970년 한국에 산업화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던 때, 강운구는 한국의 여러 시골에서 나날이 이어지는 일상의 삶을 포착했다. 현재를 찍지만 이내 과거가 되어버리는 사진들, 하지만 일상의 삶이 빚어내는 아우라까지 포착한 그의 사진은 사라진 세상 속에서 한국적인 정서를 세상과 나누고 있다. 스스로 유목민이라 칭하던 **권태균**은 1980년대 한국의 구석구석을 유랑하며 서민의 삶이 온전히 스민 공간에서 우리의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였던 이들의 삶과 그 내면을 정갈한 프레임 속에 녹여낸다. **이갑철**은 한국인의 정신적 삶의 뿌리가 되는 이미지를 마주하고 거친 입자, 기울어진 프레임, 흐트러진 포커스로, 이성을 떠난 감성의 순간적 무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김중만**은 사계절의 빛깔과 풍요로운 전통이 5천년의 역사 위로 면면히 흐르는 신비로운 땅, 한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있으며 **박종우**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에서도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낸 비무장지대DMZ에서 마주친 사실과 풍경에 대한 르포르타주를 선보인다. **조대연**은 한국에 최초로 불교가 전파된 남도지방에서 사찰이라는 공간과 그 속에 거주하는 스님들의 긴 호흡을 마주하며 한국불교에 관한 자신의 오랜 단상을 전하고 있다. **서현강**은 한국의 역사적 흔적이 가장 강렬하게 담긴 궁궐과 왕릉, 그리고 유적지를 그 사진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아하지만 강렬한 색을 품은 형태들이 가장 잘 발현되는 시간과 빛 아래에서 시공간의 시각적 요소를 자신만의 것으로 표현해낸다.

1970년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적 응물을 지닌 일곱 명의 사진가들이 담아낸 한국의 사람과 땅, 그리고 오랜 세월이 교차되고 스며든 흔적들까지, 짙은 서정성과 강렬함으로 무장한 이번 전시는 유럽의 관람객들이 접할 수 없었던 한국의 이미지이기에 더욱 아련하고 값지다. 역사를 품고 문화를 품고 사람을 품은 이번 전시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 시대적 변화를 관조하며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이미지를 때론 강렬하게 때론 따뜻하게 녹여내고 있다. 헝가리, 독일, 폴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스페인 그리고 한국,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일곱 개의 나라가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적 정서를 나누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인연의 시작인 듯하다.

PREFACE

IMAGING KOREA
-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SEOK Jaehyun

Curator

Professor of Daegu Future College

The first Eastern European country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Korea, Hungary shares so much with Korea that it's called 'The East Asia of Europe'. The most impressive thing is that, as in Korea, they hang and dry chili peppers and garlic, essential ingredients in Korean cooking. Although the chili pepper is called paprika in Hungary, the sight of it surely reminds me of an autumn day typical of Korea. Hungary located in the east of Europe and Korea located in the east of Asia. It's not a mere coincidence but a fortuitous meeting that these two countries, which light up the east end of their respective continents, are now taking the first steps together in the exhibit entitled <IMAGING KOREA-Beyond People, Land and Time> which will tour six countries starting from the 'Pearl of Danube' Budapest, Hungary and continuing to Germany, Poland, Belgium, Kazakhstan, and Spain.

There is a saying that goes '*Meeting one good person in a good place is like catching a star in the sky*'. The meeting between KIM Jaehwan, Director of Korean Cultural Center in Budapest, Hungary and KWON Taegyun, a self-proclaimed nomad and photographer of very Korean sensibility was just such a meeting. They had the idea to present Korea to Europe using the attractive medium of documentary photography. In 2014, KWON Taegyun suggested earnestly that I bring to concept such an exhibition. However, at 60 years of age he passed from acute heart failure and the plans lay in a drawer quietly. Nevertheless, the idea wasn't meant to be forgotten that easily. Director KIM Jaehwan, meeting with Korea's eminent photographer KANG Woongu, again brought up the idea of a documentary photography exhibit and plans were drawn up by mid-2015. The exhibit plan was revitalized with the ambition to share with the people of Europe the works of KWON Taegyun, high-quality Korean photography, and images imbued with Korean sensibility. It all started with the seven representative Korean photographers KANG Woongu, KWON Taegyun, KIM Jungman, PARK Jongwoo, LEE Gapchul, CHO Daeyeon, and SEO Heunkang telling the story of Korea in <IMAGING KOREA-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Documentary photography is the aesthetic way of recording a moment for all time. <IMAGING KOREA-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presents works at the pinnacle of this 'aesthetic of recording' which has never been and may never again be shown to the world. This exhibit, presenting in one place 125 photographs of beautiful strength in documentation and artistry by seven photographers of distinct perspectives, readily expresses their lives lived within Korean tradition, culture, nature, and time. The time when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based in agriculture, was at its height. The times when such culture gradually retreated. The people who had lived and are living in such times. In palaces, in temples, in historic sites, in the demilitarized zone and its reality of national division, and in everyday places, photographers represent powerful portraits of beautiful landscapes, an artisan's touch, and scenes of real life. <IMAGING KOREA-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is the lyrical language of images spanning Korea's past, its roots, and its present which are both memories we would long for and which the world can relate to. The works of this exhibition were selected from the most representative works of seven photographers who have labored extensively to complete this project. Though only excerpts from assorted exhibitions, these images collectively form a broad spectrum and represent a polished exhibition showing a different side to Korea.

The works of **KANG Woogu** are the selection from 'Luck or Destiny'. When the winds of industrialization started to blow in Korea in 1970, KANG Woogu captured the day-to-day life in Korea's countryside. Photos taken of the present which have since become the past, KANG's photos capturing even the shining aura of daily life share with the world the Korean sensibilities of a bygone era. A self-proclaimed nomad, **KWON Taegyun** wandered the corners of Korea in the 1980s and encapsulated within his neat frame the lives and spirit of our parents, siblings, and friends in the spaces of their lives. **LEE Gapchul** takes the sources of the inner lives of Korean and depicts them in grainy textures, tilted frames, and scattered focus with a spontaneous unconscious apart from rationality. **KIM Jungman** rediscovers the beauty of Korea, a mysterious land flowing continuously with rich tradition and the colors of four seasons over its 5,000 years of history. **PARK Jongwoo** gives a reportage, even in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y of Korea, of the reality and landscape faced at the demilitarized zone cleaving the waist of the Korean peninsula. **CHO Daeyeon** looks at the prolonged breathing of the monks who reside in the temples in the southern regions where Buddhism first spread into Korea and expresses his accumulated impressions on Buddhism. **SEO Heunkang** finds his photographic subjects in the palaces, royal tombs, and historic sites, things most imbued with the traces of Korean history. He expresses as his own the visual elements under the best times and lighting which best reveal the shapes of graceful yet powerful color.

This exhibit is all the more precious and valuable for containing images of Korea that European observers are seeing for the first time, armed with the vestiges, deep lyricism, and intensity of the people, land, and time of Korea as permeated over the ages and captured from the 1970s to the present by these seven photographers of different artistic bent. Embedded with history, embedded with culture, embedded with people, this exhibit contemplates Korean traditions, culture, and change over time and presents the images of Korea, sometimes powerfully, sometimes warmly. Hungary, Germany, Poland, Belgium, Kazakhstan, Spain, and Korea, seven countries with varying cultures through <IMAGING KOREA-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will witness the images and sensibilities of Korea in a cultural exchange and thus form a special connection as if '*catching a star from the sky*'.

IMAGING KOREA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Touring Exhibitions in Europe Hosted by Korean Cultural Centers

Budapest, Hungary _ www.koreaikultura.hu
May 5 - August 28, 2016

Berlin, Germany _ www.kulturkorea.org
October 6 - November 12, 2016

Warszawa, Poland _ pl.korean-culture.org
December 9, 2016 - February 13, 2017

Brussel, Belgium _ brussels.korean-culture.org
February 23 - April 29, 2017

Astana, Kazakhstan _ kaz.korean-culture.org
May - June, 2017

Madrid, Spain _ spain.korean-culture.org
September - October, 2017



WORKS

Selection from **Luck or Destiny** / KANG Woongu 17

NOMAD / KWON Taegyun 33

Conflict and Reaction / LEE Gapchul 61

The Rediscovery of Korea / KIM Jungman 85

DMZ Demilitarized Zone / PARK Jongwoo 103

Colors of the Joseon Dynasty / SEO Heunkang 125

Temples, Breath / CHO Daeyeon 141

IMAGING KOREA

4 5 6 7 8 9 10

WORKS

Selection from

Luck or Destiny

우연 또는 필연

HFM Könyvtár
20230303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KANG Woongu KWON Taegyun LEE Gapchul KIM Jungman PARK Jongwoo SEO Heunkang CHO Daeyeon



KANG 강운구 Woongu

강운구(1941~)는 호흡이 길다. 더는 눌러 담을 수 없어 넘칠 때 마지못해 전을 편다. 그래서 개인전을 할 때마다 다른 이가 두세 번은 할 만큼의 양을 쏟아 놓는다. 작업 횟수나 양에 신경 쓰지 않고 그는 다만 깊이 치중할 뿐이다. 강운구는 나이와 더불어 더 깊어져 간다. 종종 그는 “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는 밥이다” 라고 말한다. ‘사진술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진은 기록성이 있는 사진이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그의 기록은 이제 외면을 넘어서 내면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강운구는 스스로를 ‘내수 전용 사진가’ 라고 말한다. 그가 천착하는 내용이 그러하듯 ‘국제적’, ‘세계적’이란 명분으로 정체성 없는 사진들이 범람하는 현상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담겨 있을 터이다.

우연 또는 필연(학교재, 1994), 모든 양금(학교재, 1997), 마을 삼부작(금호미술관, 2001), 저녁에(한미사진미술관, 2008), 오래된 풍경(고은사진미술관, 2011)까지 다섯 번의 개인전을 했으며 여러 그룹전에 참여했다. 사진집으로 *내 설악 너와집*(광장, 1978), *경주남산*(열화당, 1987), *우연 또는 필연*(열화당, 1994), *저녁에*(열화당, 2008)가 있다. 저서로 *강운구 사진론*(열화당, 2010)이 사진과 함께한 산문집으로 *시간의 빛*(문학동네, 2004), *자연기행*(까치글방, 2008)이 있으며, 공저로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까치글방, 1999), *능으로 가는 길*(창비, 2000), *한국악기*(열화당, 2001) 등이 있다.

KANG Woongu(1941~) has prepared a long time for his show, focusing only on the quality of his work, and in that time he has produced an exceptionally large body of work. He has often said, "The best rice is steamed rice", which one might paraphrase by saying, 'The best photograph is a documentary one.' His documentary photographs have plumbed deep inside reality, beyond external appearances. He calls himself a "domestic-only photographer", which is an apt name for his approach to everyday reality. It seems to serve as a metaphor of protest against the phenomenon of overflowing photos that achieve no particular identity in their pursuit of global or international issues.

He held five solo exhibitions such as *Luck or Destiny* (Hakgojae, 1994), *Through the Unsettling Land-mindscape* (Hakgojae, 1997), *Village Trilogy* (Kumho Museum, 2001), *Embracing Evening*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2008), *Vintage Landscape* (Goeun Museum of Photography, 2011) and participated in many group exhibitions.

His photography collections are *Shingle-roofed House of Mt. Seorak* (Gwangjang Publisher, 1978), *Gyeongju Namsan* (Youlwhadang, 1987), *Luck or Destiny* (Youlwhadang, 1994), and *Embracing Evening* (Youlwhadang, 2008). His written book is *Photographic Theory of Kang Woongu* (Youlwhadang, 2010) and his photo essays are *Light of Time* (Munhakdongne Publishing, 2004) and *Nature Journey* (Kachi Publishing, 2008), and co-author works include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with Photography* (Kachi Publishing, 1999), *Path to Royal Tomb* (Changbi Publishers, 2000), *Korean Musical Instruments* (Youlwhadang, 2001) and etc.

Selection from

Luck or Destiny

우연 또는 필연

멀리 있는 친구들께

시간은 또박또박 제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빨리 간다거나 또는 느리게 간다고 말하기도 한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다. 언젠가 우연히 어떤 노인이 혼자서 오래된 유행가를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다. 서투르게 부르는 그 노래는 그래서 더 처량하게 들렸다. "...세월은~ 고장도 안 나네~"

이 사진들은 45년 전쯤에(주로 한국의 여러 시골에서)찍은 것이다. 한국에 산업화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 될 때다. 그리하여 그 결과의 여파로 이 사진들의 본디 모습들-사람들과 그 환경들은 아주 많이 달라져 버렸다.

시간 저 멀리 그때, 나는 보편적인 사실의 중요성을 겨우 인식하고 있었다. 나날이 이어지는 일상의 삶을, 그것들이 빚어내는 아우라까지 포함해서 포착하겠다는 생각은 젊은 나를 괴롭혔고, 잠들지 못하게 했다. 45년 전쯤 이 사진들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는, 사실을 매개로 한 정서가 아마도 멀리 있는 여러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일 듯하다. 그 정서가 말로 한국적인 것이며 내가 기록에 묻혀서 담으려고 애썼던 바로 그 아우라일 터이다.

기록에는 시간과 병행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

사진은 현재를 찍지만 이내 과거가 되어 버린다.

나의 이 사진들은 오래된 과거이다.

그렇다. 세월은 절대 고장 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억에서는 주관적인 시간과 객관적인 시간이 함께 가기는 어렵다.

사진은 바뀐 것들, 사라진 세상에 기여한다.

2016년 2월 12일

강운구 올림

Dear friends living in faraway places,

Time marches on at its own steady pace but people say it either moves too quickly or moves too slowly. Me, too. Once I heard an old man sing an old popular song alone. His clumsy singing made it sound all the more plaintive to my ears. "...time~ never broken~"

These pictures were taken approximately 45 years ago (mostly in Korea's countryside villages). It was just when the winds of industrialization were beginning to blow in Korea. ...As a result, in the aftermath of industrialization, the images appearing in these photos-the people and the environment, have changed dramatically.

Back then, I was only just beginning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universal truths. The thought of capturing day-to-day life and even the auras arising from it pestered me in my youth and kept me awake at nights. Perhaps more than the subjects in those photos from 45 years ago, the sentiment residing in these photos is probably the common denominator I share with many friends living in faraway places. This sentiment is very Korean and was the aura I tried so hard to capture in my photography.

Any kind of documentary entails the premise of running parallel with time.

Photography captures the present but it will soon be the past.

These my photos are the old past.

Indeed, Time has never bro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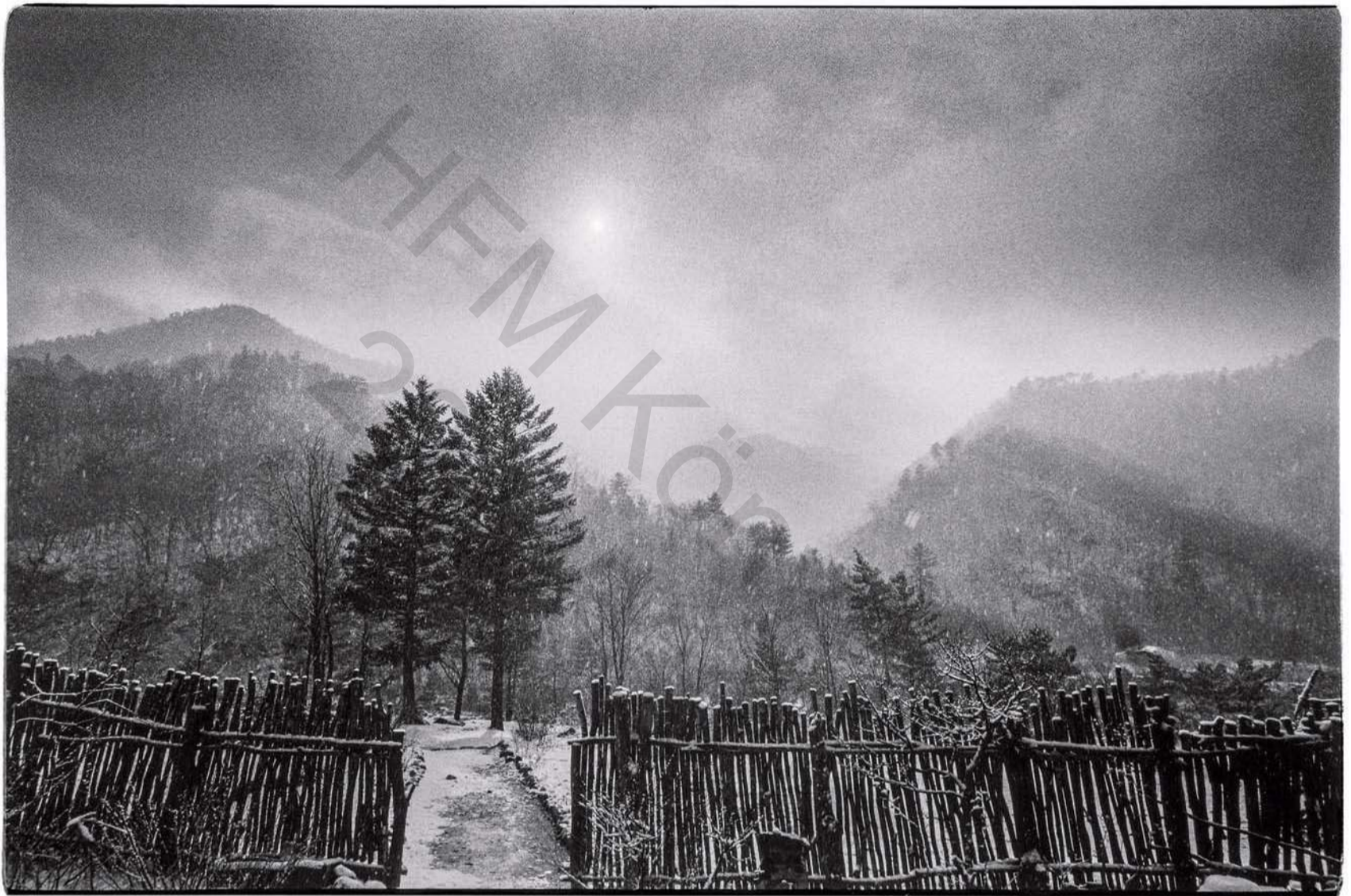
But in memories it's hard to operate on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time.

Photos contribute to things changed, to a vanishing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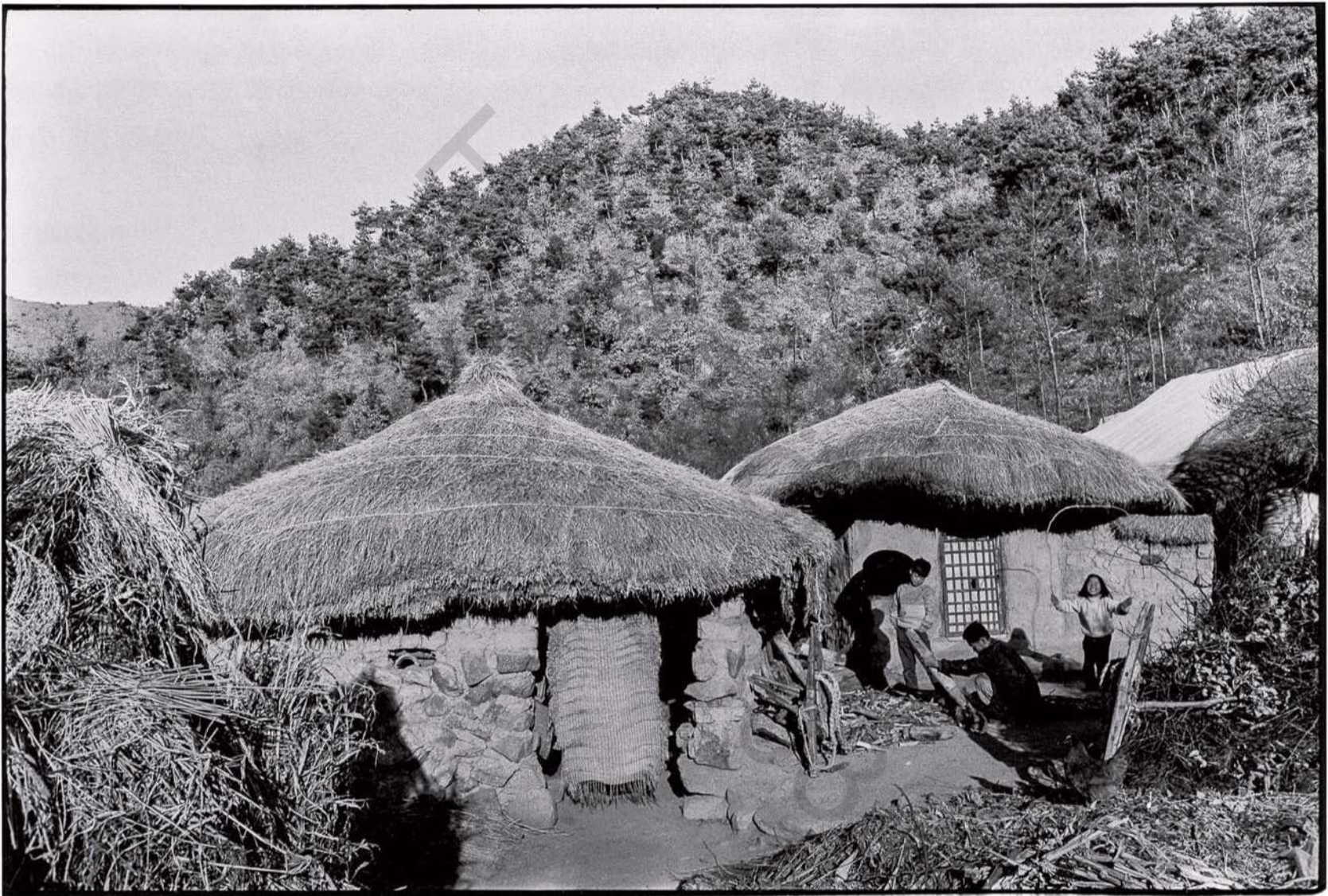
February 12th, 2016

Best regards

KANG Woongu



Inje, Gangwon. 1973
14.5 × 21cm



Wonseong(Wonju), Gangwon. 1974
14.5 × 21cm



Wonseong(Wonju), Gangwon. 1974
37 x 55cm



Jangsu, Jeonbuk. 1973
21.2 × 31cm



Jangsu, Jeonbuk. 1973
37 x 55cm



Inje, Gangwon. 1973
21.2 × 31cm



Inje, Gangwon. 1978
21.2 × 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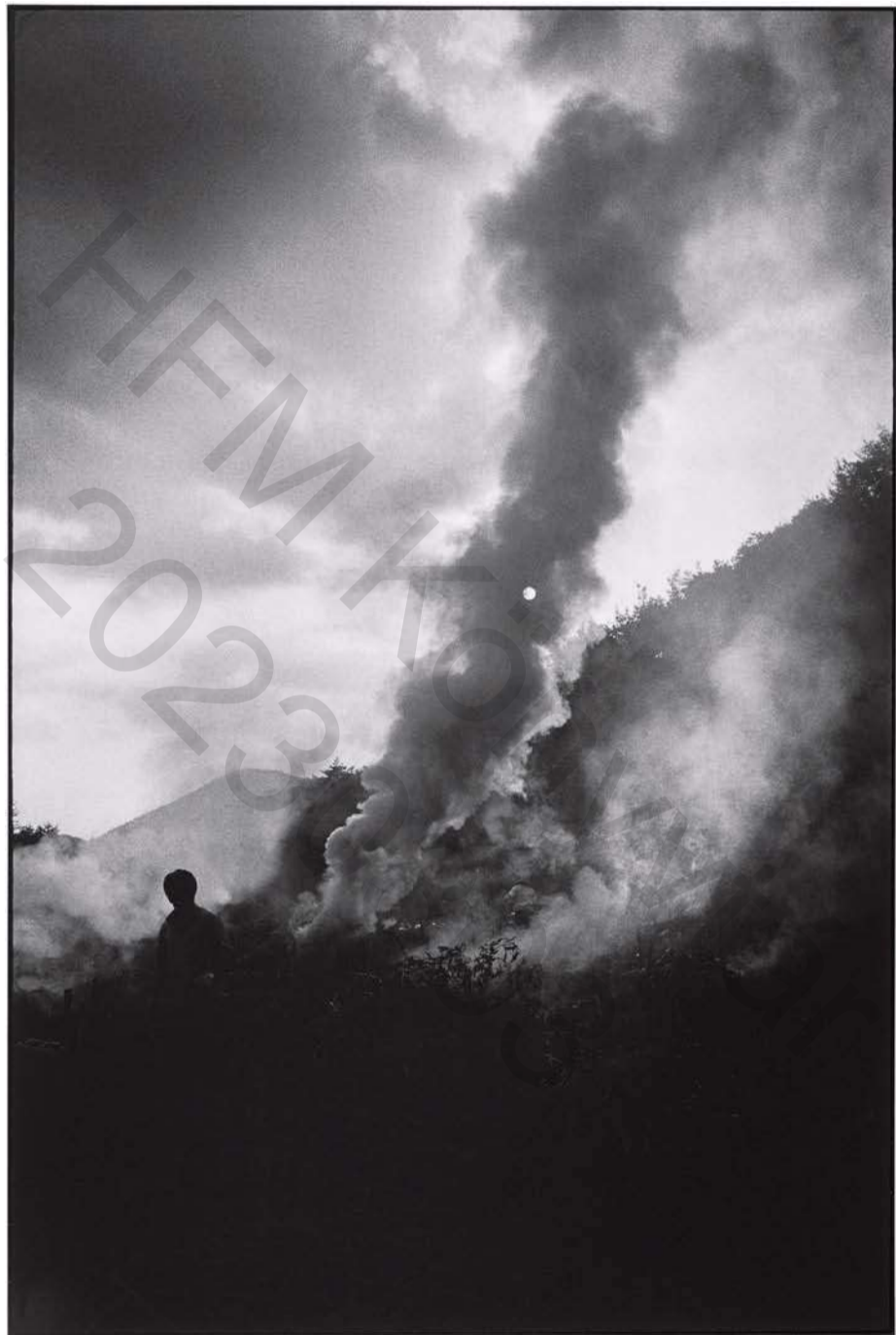
Inje, Gangwon. 1976
50.3 × 37cm



Inje, Gangwon. 1972
21.2 × 31cm



Jangsu, Jeonbuk. 1973
21.2 × 31cm



Yeongwol, Gangwon. 1995
21 x 14.5cm



4-1



4-2

Seoul. 1973
14.5 × 21cm



4-3



4-4

Seoul. 1973
14.5 x 21cm

WORKS

NOMAD 노마드

HFM Könyvtár
20230303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KANG Woongu KWON Taegyun LEE Gapchul KIM Jungman PARK Jongwoo SEO Heunkang CHO Daeyeon



IMAGING KOREA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HFM Könyvtár
20230303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KANG Woongu KWON Taegyun LEE Gapchul KIM Jungman PARK Jongwoo SEO Heunkang CHO Daeyeon

FOREWORD

Korean Tradition-European perspective 168

Baki Péter / Director of Hungarian Museum of Photography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171

Britta Schmitz / Chief Curator of 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Magnetic Imagination, and a Symbolic of Values 173

Tomasz Tomaszewski /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Photographer

A Journey of Rediscovery of Korea 175

Adrien Carbonnet / Professor of University of Leuven (KU Leuven)

“Photography doesn't force emotions but inspires them.” 177

Suleev Aubakir / Professor of Kazakh National University for the Arts

A Journey of Passions through Korea 178

Julio César Abad Vidal / Art Critic and Curator

서문

한국의 전통, 그리고 유럽의 시선

바키 페테르

헝가리 사진 미술관 관장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 전시를 처음 접하게 되면 유럽의 사진 문화권 안에서 성장해 온 사람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작품 자체가 유럽 스타일과 비슷하지 않지만 일곱 명의 사진가가 펼쳐 보이는 관점과 시각은 유사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진이 발명된 이후, 동아시아 삶의 풍경은 오로지 유럽 사람들의 관점에서 찍은 사진뿐이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사진 기술이 제한적이었기에 사진가는 무거운 장비로 작업을 해야 했고 따라서 즉흥적이 아닌 움직임 없는 고정된 이미지가 전부였다.

헝가리의 경우는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아마추어 사진가가 찍은 다큐멘터리 사진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먼저 접했다. 호프 페렌츠가 찍은 사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흔 살의 그가 세 번째 세계 여행을 했던 1903년, 경험이 풍부한 사진가였던 그는 당시의 일상을 연대기 순으로 기록했다. 그의 사진 스타일은 동시대의 유럽적인 사진 원형에서 영감을 받았기에 그가 포착한 사진의 분위기는 이곳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했다. 미국이나 유럽 사진가의 경우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 작가의 시선과 작품을 통해 한국의 풍광과 삶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 프로젝트는 독특하면서도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이 전시는 유럽인들에게 참여작가의 독특한 시선을 통해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보일 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기 때문이다.

한국 여러 사찰의 모습을 담은 조대연의 작품에서는 보편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이 지닌 전통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반

면 그는 다른 사진가라면 가능하지 않았을 그 무엇, 사진가와 승려 사이에 존재하는 무언의 공감을 담아내고 있다. 이 작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각적인 깊이와 입체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작가가 피사체를 동시대,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온전히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

이갑철 또한 다큐멘터리 사진의 전통적 형식을 따르지만 그만의 독특한 시각적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극도로 친밀한 수준으로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선 그의 작품은 사진적 대상뿐 아니라 작가의 감성이 오롯이 '일체화'된 느낌을 준다.

김중만, 박종우, 그리고 서헌강의 작품은 여행하는 이들이 쉽게 마주하지 못했던 한국의 풍광을 작가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전하고 있다. 아마 이것은 그들이 언제, 무엇을 찍을 때 최상의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들이 구현해 낸 선명한 색감과 밝은 빛은 이국적인 아시아의 모습을 기대해왔던 유럽인들에게 분명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1970-80년대 한국의 모습을 담은 강운구와 권태균의 작품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권태균의 경우는 그의 가족을 사진에 담기도 했는데 사진가와 피사체 간의 존중과 신뢰라는 아주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가 열릴 호프 페렌츠 박물관의 1895년 기념 소책자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쓰여 있다.

'호프 페렌츠의 여름 별장은 Andrassy 거리 103번가에 조용히 숨어 있다. 과시하는 듯한 장식품이 전혀 없는 심플하고 기품 있는 건물이다. 평범한 벽과 흰 커튼이 드리워진 이곳은 얼핏 다른 건물과 이웃하는 평범한 곳으로 보이겠지만, 실은 동양에서 온 보물이 숨겨진 그야말로 보석같은 미술관이다'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 전시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리라 믿는다.

Korean Tradition-European perspective

Baki Péter

Director of Hungarian Museum of Photography

When viewing the works in the exhibit <IMAGING KOREA -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visitors who grew up in the culture of European photography will surely face a shock. This is because, even if not similar in style to Europe, the perspectives and visuals shown by the seven photographers do somehow correspond with that of Europe.

From the perspective of Europe, after the invention of photography the only photos encountered of East Asia's landscapes and lives were those taken by Europeans. Unfortunately, photography in this era was limited in technology and photographers had to carry heavy equipment such that the results lacked spontaneity and were motionless and fixed.

In the case of Hungary, it first encountered images of a country called Korea from documentary photographs of world travelers or amateur photographers. The photos of Korea taken by Hopp Ferenc were introduced to Europe. Turning 70 in 1903, the seasoned photographer chronicled his life every day. His photographic style inspired by the archetypes of contemporaneous European photography, the moods captured by his photos were familiar to people. Even with American and European photographers it was mostly the same. However, gaining insight like this into the scenery and scenes of life through the viewpoints and works of Korean artists cannot but be an interesting experience.

The Project <IMAGING KOREA-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is both exceptional and extremely fascinating. This is because the exhibit presents to Europeans insight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articipant photographers and Korea can be introduced by such unknown but warm-hearted people. What's surprising is that these seven photographers are not that different in sensibility from European photographers. Therefore, we can find something universal and global in this exhibit in terms of documentary photography.

We can find similarities between CHO Daeyeon's works made at several different temples and the international tradition of documentary photography. On the one hand, he encompasses a certain affinity between photographer and subject, he

and the Buddhist clergy, that could never be found in an outsider. Perhaps most characteristic of the works is the visual depth and three-dimensionality otherwise unobtainable had his photographic subject matter not entirely accepted him as someone living and working in the same space.

LEE Gapchul follows the traditional forms of documentary photography but he realizes his own unique visual world. In attempts which most other photographers would fail at, he accesses an extraordinary degree of intimacy with his subjects. And so we get a sense of having 'no separation' from the subject in his works - including the photographer's own sensibility - a complete feeling of empathy and identification.

The works of KIM Jungman, PARK Jongwoo and SEO Heungang deliver Korea's landscape in their own remarkable styles which could never be encountered by most travelers. This is likely possible because these photographers know Korea's nature and landscape well enough to realize the utmost beauty in shooting at the right time and the right subject. The colors they capture should satisfy the yearning desire of Europeans to see the vivid hues and bright lighting of exotic East Asia.

The works of KANG Woongu and KWON Taegyun depicting scenes of Korea in the 70s and 80s show the lives of their contemporaneous Koreans. In the case of KWON Taegyun who photographed his own family, we can feel distinct emotions of respect and trust between the photographer and his subject through the works.

This exhibit <IMAGING KOREA -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proves what is written in the 1895 commemorative booklet of the Hopp Ferenc Museum as follows. ; The summer residence of Hopp Ferenc sits quietly at 103 Andrassy Street. It's a building of elegance and simplicity with no ostentatious ornament. The windows of plain walls and white curtains suggest a jewel of an art gallery, hidden between other houses without giving a clue, a hidden treasure brought here from the East.

서문

“오직 마음으로 볼 때만 분명히 보인다,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브르타 슈미츠

함부르거 반호프 현대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이미지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소통의 방법이다. 사진은 단지 이미지를 담아내거나 현실을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고 가시적인 무언가에 영혼을 부여한다.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은 작가 개개인의 시각적 세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내면을 그려냄으로써 한국을 표현한다. 이번 전시 작품 면면을 살펴보면 개인적이면서 개념적이고 지극히 현대적인 작품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IMAGING KOREA〉는 여러 전후 세대의 이미지를 통해 아주 강렬한 표현방식의 파노라마를 전달한다.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은 점점 독자적으로 나열되는 일련의 시처럼 배열되어 있다. 전시에 참여한 사진가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시선과 세심한 주의력으로 한국의 풍경과 문화, 종교와 사람들, 그리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모습까지 포착하고 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듯하며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인식과 더 닿아 있다.

이 전시에 함께 한 작가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드러난 대상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작품들을 바라보았을 때 제2차 세계대전 후 짧은 기간 동안 크나큰 구조적 변화를 경험한, 복잡한 역사를 지닌 한국을 다각적인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극복하기 힘든 지리적, 이념적 경계로 나누어진 국가이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작가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경고를, 사진을 통해 자각하는 일종의 증인이라 할 수 있다.

몇몇 작가들은 한국의 시골 풍경 속에서 자신의 주제를 찾고 있다. 한국에서 삶의 가장 근원이 되는 자연은 작가의 감성적인 해석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작업이 갖는 감동적인 느낌을 강렬하게 전하고 있다. 불교의 생생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몇몇 작품 시리즈는 주제를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이번 전시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은 대상을 통한 내적 사유의 경험을 담는 작가와 대상과의 일체화를 꾀했던 작가의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라 할 수 있다.

FOREWORD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 Antoine de Saint Exupéry

Britta Schmitz

Chief Curator of 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To express oneself and to convey one's thoughts through images is a way of communication which is reserved to human beings. Photographs do not only take hold of images or reflect reality; they also capture the invisible and lend visible objects a soul.

The photos of the exhibition <Imaging Korea-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reveal individual visual worlds and interpret Korea as a clipping of a kind of inner narrative. The works are partly personal, partly conceptual, partly modernistic; there can be found a variety of styles. <Imaging Korea> delivers a panorama of intense forms of expression in the photography of several postwar generations. The history and identity of the country lies in the arrangement of the pictures, like a series of poetry which becomes increasingly independent. Each photographer has his or her own perspective, zooms in on landscape, culture, religion, people and their everyday occurrences with a great awareness of details. The glances of the photographers derive if anything from the sub-consciousness and are related rather to inner than to outer perceptions.

All photographers of this exhibition have in common that they do not merely present explicit subjects. Only the overall view of the pictures renders possible a polyvalent perspective of a country which has a complex history after Second World War and which experienced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great structural changes. It is a country which is still divided by a painful and unsurmountable geographical and ideological border. The photographers of this topic possess the glances of people searching for something; they are eyewitnesses who also relate their perception as an admonition against oblivion in pictures.

Other photographers search for their topics in the countryside. They depict the expressive nature as basic conditions of life in Korea and connect facts with an emotional interpretation and with the great poignancy of documentary photography. Also, the very vivid culture which is guided by Buddhist rules is being described in a sensitive way in several series of pictures which constantly shy away from an explicit commitment with regards to content.

The exhibition <Imaging Korea-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unites photographers who display personal experiences of objects with an inward-looking view and who do not rely on the dissociation of the subject.

서문

상상력, 그리고 소중한 가치

토마스 토마제프스키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가

〈IMAGING KOREA - 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이라는 특별한 전시를 폴란드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유명한 다큐멘터리 작가들의 작품은 아주 흥미로울 뿐 아니라 특유의 풍요로움과 색감, 독특함, 역동성과 다양함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문화의 눈부신 모자이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가 흔히 한국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것과는 사뭇 거리가 먼, 일곱 명의 참여 작가 개개인이 지닌 독창적인 시각과 특별한 표현에 놀라움을 느낄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보는 이들이 열광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이미지를 단순히 보여주거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흔적과도 같은 상징적 이미지의 조합이다.

〈IMAGING KOREA〉의 작품을 보면 작가가 익숙한 대상을 개인적이면서도 본질적으로 구현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관람객은 그들의 독특한 감수성 덕에 단순히 묘사된 이미지가 아닌 좀 더 깊이 있는 특별한 여정에 초대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 세대가 할 수 있는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통해 과거로의 시간 여행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전체가 일관된 흐름이나 비슷한 감성을 반영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독특한 힘을 전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본질적 감성과 은유적 기법, 시각적 퍼즐 등이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의 작품은 내 상상력을 강하게 이끄는 자석과도 같다. 이는 정신 없이 돌아가는 사사로운 우리의 일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품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단순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간절히 바라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FOREWORD

Magnetic Imagination, and a Symbolic of Values

Tomasz Tomaszewski
National Geographic Magazine Photographer

Poland will be the host of an exhibition which we may certainly consider a unique privilege to see. This is because the photographic images of the seven renowned Korean documentary photographers form an intriguing and frequently surprising mosaic of the culture which, for a long time now, has been continuing to fascinate many of us with its specific richness, colours, distinctness, dynamics and diversity. We, Poles, often associate it with modernity, state-of-the-art technology, civilization power.

In this context, the exhibition is going to be a great surprise since this original, photographic expression of the seven artists is far from the common associations we usually bring up when we think of South Korea. The collection of pictures, eclectic in its nature, is a set of symbolic images whose purpose is not only to show or recall things, in other words to provide evidence on what they look like.

In the case of <IMAGING KOREA> we rather deal with photographs which are an individual, original interpretation of the world the photographers know very well. This is thanks to their unique sensitivity that they are able to invite us – the audience – to a specific journey – even further and deeper than what just an image can depict. We also time travel to the past as we are surrounded by pictures taken in the seventies and eighties of the previous century. The main message they convey is not so much that all that is not there anymore, as that it did certainly exist.

Many images shown in the exhibition call for some reflection, boost stream of associations, thus one would not be wrong in saying that they consequently display some unique power. This is especially the case of them perfectly combining the essence and emotions, metaphor and visual puzzle put in an ideal form.

In other words, the pictures of the seven Korean documentary photographers selected for the <IMAGING KOREA-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have a magnetic influence on my imagination. The reason being probably that they fortunately refrain from dealing with our fast-paced everyday life, separate and peripheral events. They are not a record of what has happened, but a symbol of values, as well as, probably, of what we long for.

서문

한국의 재발견, 특별한 여정을 꿈꾸다.

아드리앵 까르보네

루벤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유럽의 주요 도시 6개국에서 펼쳐질 이번 전시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가 일곱 명의 작품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에 소개될 각각의 작품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형뿐 아니라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를 다뤘던 작가들의 작업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조대연의 작업은 불교가 공식 국교로 지정되었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당시 건립되었던 아름다운 사찰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작업의 배경이 되었던 통도사와 송광사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3대 사찰인 삼보사찰(三寶寺刹)에 속한다.

김중만의 경우는 색상과 콘트라스트(contrast), 인상적인 구성으로 한국의 풍경과 인물을 독특하면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일로 구현하고 있다.

박종우 작가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한국전쟁(1950-1953)을 비무장지대(DMZ)를 통해 오롯이 다시 드러내고 있다. 남북한으로 각 2km씩 4km의 폭으로 38도선을 따라 248km의 길이로 나 있는 DMZ는 오랜 시간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들의 인식처가 되었다.

가면, 무당, 유생... 이갑철의 작업은 흑백 사진과 과감한 프레임이라는 그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한국의 전통을 새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서헌강은 한국의 위대한 유적, 특히 1392년부터 1910년까지 오랜 전통을 이어왔던 조선시대 왕릉을 새로운 빛의 기법으로 구현했다.

마지막으로 흑백 사진에 당시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한 작업이 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강운구 작가의 1970년대 한국의 모습과 1980년대 권태균 작가가 한국의 경상남도 지역을 담은 작업이 그것이다.

아름다운 한국을 재발견할 수 있는 이 특별하고 귀한 여정을 한껏 기대해 보자.

FOREWORD

A Journey of Rediscovery of Korea

Adrien Carbonnet

Professor of University of Leuven (KU Leuven)
Korean Studies

“Imaging Korea”, a travelling exhibition shown in the capitals of Europe, invites you to discover-or rediscover-Korea through the works of seven Korean masters of photography.

Each series represents a journey, away from the beaten track, in different regions of the country. A journey across geography, but also a journey in time as the subjects treated by the artists cover the history of Korea from its origins to the present day.

The photographs by CHO Daeyeon are an invitation to contemplate the beauty of Buddhist temples erected during the periods of the Three Kingdoms(57-668 CE) and of Unified Silla(668-892 CE), during which Buddhism acquired the status of an official religion. Two of these temples-the Tongdo temple and the Songgwang temple-are part of the Three Jewel Temples of Korea.

KIM Jungman welcomes us into his unique universe of fairytale landscapes and captivating portraits, while playing with colours, contrasts and splendid compositions.

The fratricidal Korean War(1950-1953) resurfaces in the series presented by PARK Jongwoo, which is entirely dedicated to the demilitarized zone(DMZ). 4km wide, the DMZ extends 248km along the 38th parallel, splitting Korea in two. As an area uninhabited by people, over time this unintended natural park has become a safe haven for several animal species.

Masks, a shaman, a Confucian scholar... LEE Gapchul chooses black and white and a courageous framing to revisit, in his own way, Korean folk traditions.

SEO Heunkang sheds new light upon the great sites of Korean heritage, and in particular on the royal palaces and tombs of the Joseon Dynasty (조선왕릉 朝鮮王陵), whose kings occupied the throne from 1392 until 1910.

Finally, the two artists KANG Woongu and KWON Taegyun record scenes from everyday life in black and white. While the former shot in the 1970s, the latter captured the decade of the 1980s in his native province of Gyeongsangnam-do.

Let your imagination be your guide on this journey of discovery of an exceptional country!

서문

“사진은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일으키는 것”

- 유스티노프. L., 1965

슬레예브 아우바키르

카자흐국립예술대학교 교수

‘시각정보’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다. 사건을 시각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사진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삶과 그 속에 표현되는 삶의 희노애락은 보는 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영상 다큐멘터리는 정보 전달에 있어 사진을 능가하는 효율성이 있지만 장시간 집중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을 담은 사진의 경우에는 순간에 포착된 사람들의 얼굴이나 세밀한 부분까지도 천천히 신중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사진의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속에 나타나는 내면의 세계와 단순하면서도 신성하고 고귀한 그 무언가를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일곱 명의 사진가들은 평등한 세상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 마음의 행복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 작품을 가로지르는 철조망, 그 철조망으로 나뉜 한 민족의 존재에 대한 성찰. 이 철조망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지닌 평화로운 자연과 진귀한 아름다움을 되새키고 있다.

일곱 명의 작가 중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작가를 고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작가들이 그들의 마음과 조국을 향한 사랑을 작품에 녹여내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들은 일상 속에 새겨진 한국의 특별한 아름다움과 삶의 숨결을 통해 한국적인 정서와 자연, 그리고 시간의 여정을 세밀히 표현하고 있다.

사람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 그것은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거나 서로를 닮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사진 예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 두 나라가 결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멀고도 닮은 두 나라!

이번 전시회가 이곳, 카자흐스탄에 큰 감동을 주리라 확신하며 양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질 <IMAGING KOREA-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을 고대한다.

FOREWORD

“Photography doesn’t force emotions but inspires them.”

- Ustinov. L., 1965

Suleev Aubakir

Professor of Kazakh National University for the Arts

Documentary photography, said to be the processing of ‘visual information,’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our society. Documenting events through visual means is the most crucial role of photography in modern society. Life as photographers aim to express it along with all its daily joys, worries, sorrows, and concerns heavily impact the viewers of the photographs.

Documentaries in other visual mediums, in terms of delivering information, surpasses photography in efficiency. But it remains a fact that focusing on a video medium for long periods is difficult. But with photos covering the same subject matter, one can ponder upon and gradually grasp the details and people’s faces captured in the moment. If one repeatedly looks at photographic images, what emerges clearly is the inner essence of the subject in all its simplicity, sacredness, and nobility.

The barbed-wire that runs throughout these photos offer contemplation on the fact of a people divided. It would appear to tarnish the peaceful nature and the rare beauty of this Land of Morning Calm. The seven participant photographers of this exhibit in this capacity aspire for a fairer world, a better future, an inner happiness, and peace in the land.

It is impossible to pick a favorite photographer among these seven. All seven of them imbue their work with their heart and soul and love for country. They all portray in detail the unique beauty of Korea in the everyday and convey the Korean soul through scenes as well as show nature and the passage of time.

A sympathetic view of humanity, that is the engine for creating a more compassionate world and bringing us all closer together. I believe this is the ultimate aim for the photographic arts in Korea. And it binds us into one.

Kazakhstan and Korea! Two countries distant yet kindred!

I trust this exhibit will leave a lasting impression on Kazakhstan and the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will deepen as a result of <IMAGING KOREA -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서문

한국을 향한 호기심 어린 여정

홀리오 세자르 아바드 비달

예술 평론가, 큐레이터

〈IMAGING KOREA-사람, 땅 그리고 시간의 저편〉은 일곱 명의 한국 사진가들이 펼쳐 보이는 걸출한 전시로 이는 우리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안내하는 열정적인 여정이 될 것이다.

강운구(문경, 1941)와 권태균(의령, 1955~2015)은 미학적인 감성을 지닌 흑백사진을 선보이는데 이는 당시 한국 서민층을 향한 사회적 감수성을 담아내고 있다. 사진가 강운구는 1970년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권태균은 1980년대에 길-삶 자체에서 가장 통렬한 비유 중 하나인-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초상에 초점을 맞춘다. 이갑철(진주, 1959) 역시 흑백작업으로, 정통을 벗어난 기발한 프레임을 통해 종교적인 관습이 뿌리내린 한국의 힘 있는 풍광을 시각화한다.

풍경 작품을 들여다보면, 색감이 총명한 김종만(철원, 1954)의 작업은 단순히 유형적으로 실재하는 존재를 그윽하고 멋스럽게 승화시키고 있으며 박종우, 조대연, 서현강이 선보이는 컬러 작업 또한 미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수남사, 통도사 그리고 원주사 등 사찰에서 생활하는 수도승의 삶을 다룬 조대연(전주, 1962)의 작업은 우리를 신비로움의 세계로 안내한다. 비무장 지대에 대한 르포르타주를 선보인 박종우(서울, 1958)는 정치라는 것이 청정하고 장엄한 풍광에 어떻게 상흔을 남기는지, 그리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여전히 단절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서현강(천안, 1969)은 '장명'이나 '명릉'처럼 조선의 왕릉, 그리고 궁궐과 종묘를 선보이면서 한국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역사가 지닌 인상적인 조선의 색을 선보인다.

사진은 때론 현실 속에서 신비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순간을 포착해 낸다. 일종의 초월성에 대한 목마름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뛰어난 일곱 작가의 작업에서 만날 수 있는 고통과 사랑, 강건함 속에도 분명 이러한 특별한 순간이 담겨 있다.

FOREWORD

A Journey of Passions through Korea

Julio César Abad Vidal
Art Critic and Curator

<Imaging Korea-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an outstanding selection of works by seven Korean photographers, curated by SEOK Jaehyun, sets us on a journey of passions across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Both KANG Woongu (Mungyeong, 1941) and KWON Taegyun (Uiryeong, 1955) employ black and white photography for an aesthetic pursuit that shares an empathic social sensibility towards the underprivileged citizens of Korea. KANG Woongu shows the strength of the inhabitants of tough sceneries in the seventies, and KWON Taegyun focus on portraits of anonymous persons, mostly on the road (one of the most poignant metaphors of life itself), in the eighties. LEE Gapchul (Jinju, 1959), also in black and white pictures, makes visible the telluric force of landscapes inhabited by religious practices with a use of framing that is as heterodox as it is brilliant.

Also in the landscape genre, but in full colour photography, the work by KIM Jungman (Cheorwon, 1954) offers pictures ooded by atmospheric effects that sublimate what is merely tangible. Full colour photography is also the vehicle for the aesthetic strategies of CHO Daeyeon, PARK Jongwoo and SEO Heunkang. Cho Daeyeon (Jeonju, 1962) deals with Buddhist monastic life in the Temples of Seonamsa, Tongdosa and Wonjusa, with pictures that, more than showing, sink us into mystery. PARK Jongwoo (Seoul, 1958), by portraying the Demilitarized Zone, shows how politics leaves scars to a pristine and majestic landscape, being Korea the only country still separated in two as a result of a civil war. Finally, SEO Heunkang(Cheonan,1969) gives impressive atmospheric suggestions of the Korean historical architectures and historic sites, such as the Royal Tombs of 'Jangmeung' or 'Myeongneun.'

Sometimes, photography is able to capture an aural magic in reality and, thus, a thirst for transcendence. This photographic passage through pain, love and stoutness granted by seven gifted photographers certainly does.

한국대표작가 유럽순회사진전

The Korean Photographers' Touring Exhibition in Europe

Beyond the People, Land and Time

IMAGING KOREA

Period | May, 2016 - October, 2017

Venue | Ferenc Hopp Museum of Asiatic Arts, Hungary. Korean Cultural Center, Germany
State Ethnographic Museum, Poland. Korean Cultural Center, Belgium
Korean Cultural Center, Kazakhstan. Korean Culture Center, Spain

Organizer | Korean Cultural Center, Hungary

Participants | Korean Cultural Center, Hungary. Korean Cultural Center, Germany
Korean Cultural Center, Poland. Korean Cultural Center, Belgium
Korean Cultural Center, Kazakhstan. Korean Culture Center, Spain

Co-Sponsors | Ferenc Hopp Museum of Asiatic Arts, Hungary
State Ethnographic Museum, Poland

Curator | SEOK Jaehyun _ Korea Photo Contents Institute

Exhibition Team | PARK Yeonjeong, KIM Sara

Translator | SHIN Eunkyung

Publisher |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_ www.kocis.go.kr

Date | March 30, 2016

Design | KWON Seokjin _ Print House

Printing | Sinsago Hi-tech Co., Ltd

ISBN 978-89-93547-50-4

© All the images and texts in this publication cannot be used, modified,
or reproduced in any manner.

Copyright Inquiries _ photoseok@gmail.com